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안티드론 기술 개발·실증 본격화

전북자치도, 과기정통부·방사청·새만금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드론 위협 대응 국가 차원 실증기반 확보

새만금을 중심으로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기술 실증과 산업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서울역 인근에서 '새만금 안티드론 임시실증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조흥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오용수 과기정통부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규현 방위사업청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부안군 관계자 등 중앙·지방정부 인사와 L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안티드론 기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대드론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을 활용한 안티드론(불법 침입하는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기술) 임시 실증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수요가 있는 안티드론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실증 환경 조성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첨단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공황과 발전소, 국가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드론 침입 사례가 잇따르면서, 드론 위협 대응은 국가안보와 항공안전, 주요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안티드론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기술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참여 기관·기업은 △수요 기반 안티드론 기술 개발 △새만금 지역을 활용한 임시 실증 추진 △실증 환경과 제도·기술 기반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국방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신속한 시험·평가 체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공식 실증과 평가를 통해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와 다양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정익·



17일 서울역 인근에서 '새만금 안티드론 임시실증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조흥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오용수 과기정통부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규현 방위사업청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회전익·군집 드론 등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실증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레이더, 전파 차단, 광학 추적 등 차세대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이번 협약은 실증 중심의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실증·시험 환경을 갖춘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 베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 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기관 집적화를 통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방위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조흥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새만금이 국가정책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위산업과 국방·대테러 역량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라고

중요성을 밝혔다. 이어, "국내 전과환경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하면, 장거리 안티드론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드물다"며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은 최적의 입지이며, 관광단지 조성 전 국방·대테러 기관 및 방산 업계의 임시 실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규현 방위사업청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거리 안티드론의 본격적인 기술 실증을 수행하는 물론 향후 AI Pilot, 피지컬 AI 등 새로운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술 변화와 안보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은 국가 차원의 드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기술 실증과 투자, 산업화를 연계해 미래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32억원 확보

한국문화원형 전시관·동물보호센터 등 49개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원도 협의 마쳐
민생 지원·지역경제 방점... 지연됐던 현안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올해 하반기 지역현안 49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32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재원이다. 지방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현안에 활용되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지방비를 보장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사업으로 △전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10억원 △정읍 동물보호센터 설치 10억원 △완주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10억원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10억원 △부안 하서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군산 방축도 자가발전 시설 개선 6억원 등이다.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들이 이번 예산 확보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는 △감제 월성동 세천 정비 10억원 △정읍 덕천문 장무소하천 교량 재가설 5억원 △남원 감성소하천 정비 5억원 △임실 신정리 상습피해지역 정비 5억원 △고창 흥덕면 재해예방 정비 5억원 등 도민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2026년 본예산에서도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청년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회복,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생생발차형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라며 "이번 특별교부세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서 울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도내 14개 시군 비상방역체계 가동

도, 추가 확산 차단 행정력 집중... 가용 자원 총동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울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도내 전역에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도는 지난 16일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 제한, 소독 등 초동 방역을 즉각 실시하고, 14개 시군에 방역 강화 지침을 긴급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생은 울겨울 도내 첫 고병원성 AI 사례로, 전북자치도는 발생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예방과 현장 점검을 확대했다.

도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공동방재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나섰다.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

고하도록 농가 대상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 검사와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금까지 AI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분수령"이라며 14개 시군에 방역 대응 체계 재점검과 행정력 총동원을 요청했다. 예방과 소독, 출입통제 등 기본 조치를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하고,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농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 방역과 차단방역 5대 수칙 준수를 지속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차단방역 5대 수칙은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복장 착용, 부출입구 폐쇄,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야생동물 출입 차단 등이다. 폐사가 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책임감을 갖고 함께 대응하면 추가 확산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며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과 시군별 책임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축산 농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피어나다 남원

고향사랑기부제로 남원을 응원해주세요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개인)의 주소지가 남원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남원에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기부액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액 30%이내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남원사랑상품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카메라 켜서 QR찍고!
QR코드 스캔하기

회원가입하고 남원시에 기부하기 누르고
기부액 입력하고 답례품 선택!

대면기부
농협창구 방문 신청(전국 어디서나)

2025년 남원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 남원 미래인재 해외 영어 캠프
- 남원 인재학당 채움사업 (책상이자 세트, 셔틀버스 구입)

문의 남원시 대외협력팀 063-620-6097

남원시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